

철거민 고 박순덕씨의 사망원인과 사건개요

못가진자를 무참히 무너뜨린 자본가의 괴력

대기업의 강제철거에 공권력도 합세

우리 속담에 '아흔 아홉마지기의 땅을 가진 사람이 백마지기를 채우기 위해 한마지기의 땅을 가진 사람의 땅을 넘는다'는 말이 있다. 역시 선조들의 선견지명은 뛰어났다.

지난 7월 25일 오전 9시 30분경 동대문구 전농 3동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구역에 의한 방화살인으로 철거민 박순덕씨가 사망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6년 9월, 철거민들은 재개발조합, 선정건설, 동대문구청과 함께 가수용단지건설과 임대아파트 입주보장을 골자로 합의공중을 받아내었다. 하지만 가수용 52세대를 지어준다는 약속 이행은 커녕 97년 6월경 동대문구청이 강제철거 계고장을 발부한데서 시작되었다.

철거민들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상황에 대한 항의로 6월 23일부터 높이 18미터 높이의 일명 '폴리앗'이라고 불리는 철탑망루에서 고공농성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24일 공권력은 지역을 원천봉쇄하고 지역주민 8명을 연행하였으며 이후 단전 단수로 농성자들을 완전히 고립시켰다. 빛줄을 받아 먹고 간간히 목숨을 부지하던 농성자들에게 7월 25일 악몽 같은 강제철거가 시작된 것이다. 선정건설의 사주를 받은 3백여명의 철거용역들은 6백여명의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철거를 간단히 끝내었다.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의 한 관계자는 "철거용역과 공권력은 철탑망루 안으로 기를이 문은 타이어를 던져 넣고 화염병을 던져 철탑망루 위에 있던 주민 10여명의 질식

을 기도했다. 철탑망루가 화염에 휩싸이자 다급해진 농성자들은 미처 내려오지 못한 채 연기를 피해 18미터 아래로 투신을 하게 되었다. 철거용역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투신주민중 경상을 입은 주민 9명도 있었다"고 말했다.

불길에 한참 치솟은 후에 소방차는 불을 끄기 시작하였고 투신한 주민중 9명은 중상으로 경희의료원, 성바오로, 새서울, 위생병원으로 분산 후송되었고 박순덕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경희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7월 26일 새벽 사망하였다.

8월22일 전농3동 주민 7명이 정역3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해 항소를 한 상태이며 '철거민 박순덕씨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선정건설측과 합의를 찾지 못해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비대위측의 요구사항으로는 △민중장 노제 △가수용 임대 △책임차별 △배상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언론에 선정의 만행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데 힘을 쏟고 있는 한편 전단을 만들어 지역주민들과 거리 선전전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공권력의 탄압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2시 종로공원에서 '고 박순덕씨사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중주거권 쟁취를 위한 제4차 투쟁대회'가 있었다. 철거민, 전노련, 학생등 약 4백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는 인하대 김영규교수의 규탄선언과 김창수씨의 유가족연설로 시작되었다.



▲지난 27일 선정건설측 도로에서 대기업의 횡포에 항의하는 시위대 연행하는 전경.

폰이어 선정건설사장과 청량리 경로를 점거하자 전경들이 애워싸기 시작했고 시위를 주도하던 선동자나 박순덕씨의 사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분노한 나머지 태형식을 화형식으로 바꾸었다. 순간 전경들이 난입해 소화기로 불을 끄는 과정에서 철거민들과의 약간의 마찰이 빚어졌다.

이어진 2부행사는 종로에서 선정건설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갖은 후 명동성당입구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후포구 노동자들과 연대투쟁을 갖을 계획이었다. 선정건설앞에서 정리집회를 갖기 위해

도를 점거하자 전경들이 애워싸기 시작했고 시위를 주도하던 선동자나 박순덕씨의 사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분노한 나머지 태형식을 화형식으로 바꾸었다. 순간 전경들이 난입해 소화기로 불을 끄는 과정에서 철거민들과의 약간의 마찰이 빚어졌다.

전노련의 한 관계자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대중조직을 이렇게 천대하는 곳은 없다. 힘없는 조직이라고 경찰측에서 쉽게 보는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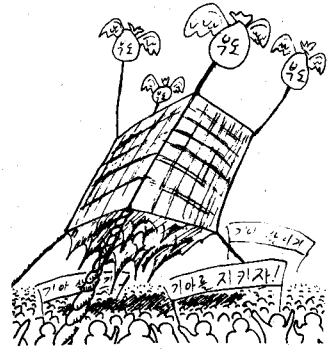
이날 시위로 현장에서 70여명의 시위대가 연행되었으며 그 중 36명이 중부, 성북, 관악, 서초, 방배, 노랑진, 강남경찰서로 연행되었다. 29일 상황으로 원준호(홍익대)씨가 구속되었고, 8명이 불구속, 14명이 즉시에 회부되어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13명은 훈방으로 처리된 상태이다. (최현일 기자)

세·시·봉

국민기업은 미련일뿐(?)

최수정 편집장

80년대 말 프라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은 말그대로 '차 한 대 사기 빠듯한 사람들의 자부심'이었다. 작지만 튼튼하고 웅크리게 생긴 모습이 서민들의 삶과 닮았기 때문일까? 프라이드는 많이 팔려나갔고 봉고로 자리잡은 기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대단히 한 몫 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이제 기아에서는 콩코드, 세피아를 거쳐 중형차 크레도스와 정밀 비싼차 포텐샤도 나온다. 기아가 우리나라에서 8번째 가는 재벌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 기아가 한달전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았다. 부도방지협약에 따라 두달안에 어떻게든 살 공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공공분해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사실 기아에게 이런 시련은 처음이 아니다. 80년대 초반에도 제2차오일소크의 영향으로 5백억원이 넘는 적자와 5천억원에 가까운 부채에 몸살을 앓았으며 신군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중화학 분야의 투자조정 조치로 쌍용자동차와 합병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때 기아를 살린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와 더불어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전 사원들의 결의 였다고 한다. 상여금을 반납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모험적인 노사협조를 모색하겠다는 전 사원들의 다짐은 기아가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되고 국민주기업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기아를 국민기업으로 만들었다.

그이후 기아는 마치 악역 재벌에 대항하는 백기사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이미지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요 사이 기아가 어렵다고 하자 범 국민적 운동본부가 생기고 평소 재벌은 없어야 한다고 목청껏 외치던 이들이 정부가 기아를 돕지 않는 것을 따지는 것만 봐도 범 국민적인 "기아사랑"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인 것 같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방만하게 경영해왔다면 부도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임에도 국민들은 마치 물난리를 겪은 수재민을 보는 것처럼 기아호의 좌초를 안타까워 하고 있다.

거기에는 일종의 집착과 울분이 묻어있다. 좁은 땅덩어리의 86%를 특별난 10%가 다 가진 나라, 가진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만민 지하철에 서로의 몸을 부딪으며 살아야 하는 자들의 미련 말이다.

한총련의 8·15 행사 어떻게 볼 것인가

한총련 거듭나기 가능성 있다

폭력 대응자제로 좌경폭력이미지 재고

지난 15일 치뤄진 8차 범민족대회와 7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은 그간 학생운동세력의 과격한 시위 방식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되므로 해서 전국연합(전국민주주의연맹)등 재야민주단체의 통일행사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운동 세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지만 학생운동세력의 거듭나기 가능성을 보여준 행사로 평가된다.

연세대 사태와 제5기 한총련 출범식 이후로 한총련 관련 행사와 집회는 모두 정부의 강경한 진압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었다. 때문에 이번 통일행사의 경우도 정부의 행사

불허방향이 내려므로해서 11일부터 서울지역 거의 모든 대학에서 검문이 실시되었고 체포된 8,15대회 관련자수만 해도 400여명을 넘는 강경단압이 이루어졌다. 서울에서 개최예정이었던 대회가 하루만에 광주에 위치한 조선대로 장소가 변경되는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피하지 못할 상황이었는지도 모른다.

장소를 옮겨서 치루게된 이번 통일행사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던 참가자들이 미처 광주에 도착하지 못하고, 각종 행사준비가 급하게 이뤄져 약 500명정도

의 학생만이 참가한 초췌한 행사가 되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한총련 세력약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강경진압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대응을 자제한 채 치뤄진 이번대회가 학생운동세력의 이미지제고에 어느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총련은 이 대회에서 범민족대회를 좌경폭력적 행사로 인식하고 규장하던 이들에게 "당신의 가슴 속에 진정한 통일외지가 남아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받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현장취재

한국후포구 농성현장을 다녀와서

자본가 논리에 맞선 한국후포구 노조



▲명동성당 입구에서 22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

명동성당 입구. 늦 여름의 뜨거운 햇살로 온몸이 찢어지는 때 생수 한 모금으로 몸을 지탱하며 힘으로 억압하는 자본가의 논리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한국후포구 노조원. 노조원들은 관할 경찰서의 묵인아래 용

인되었던 철거용역들의 만행에 치를 떨며 명동성당입구에서 "용역강제 철수하라" "악덕기업주는 물러가라"며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다. 노조원들이 참가한 이날 집회는 인하대 김영규교수의 규탄선언과 김창수씨의 유가족연설로 시작되었다.

96년 11월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자 안산 역에서 선전을 하던 조합원에게 30-40명의 관리자와 철거용역들이 달려들어 7명의 조합원들이 전치3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또

알리고 책임자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달반여동안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걷잡을 수 없는 95년도부터인데 회사측이 노조를 무시하고 임단협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일방적인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 96년 8월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재발생 결정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회사측은 96년 9월9일 일용근로자라는 명목으로 30여명의 철거용역들을 공장 안으로 투입시켰다.

96년 11월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자 안산 역에서 선전을 하던 조합원에게 30-40명의 관리자와 철거용역들이 달려들어 7명의 조합원들이 전치3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또

한 올해 1월 6일 조합원들이 대회를 하고 있을 때 20여명의 철거용역들과 30여명의 관리자가 난입해 무차별적인 구타를 자행하였다. 이송진(노동조합 문화부장)씨의 말에 따르면 "갈비뼈가 1대까지 2대정도가 부러진 사람들이 있었고, 코뼈가 부러지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철거용역자들은 갈비가 부러진것같이 숨을 쉬기가 곤란하다고 말하는 조합원들의 말에 피뎌이라며 머리를 바닥에 박고 무릎을 꿇을 때까지는 2시간여동안 감금했다"고 한다. 한편 폭행자인 철거용역들은 도리어 자신들이 조합원들에게 맞은 것인 양 진단서를 끊어 조합원들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22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여지껏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교섭을 이끌어내고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우리에겐 아직 큰 힘은 없으나 앞으로 계속 언론에 사실을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현일 기자)

교수님 개강파리부터 하구요!

8/23~9/7

에버랜드 · OB 라거가 함께하는
캠퍼스 페스티벌!
8/23~9/7

푸짐한 행사, 엄청난 할인!

- ◆ OB라거 서울행사
- ◆ 알팔라-엔스 콘서트
- ◆ 세계로 가는 OX 퀴즈대회
- ◆ 캠퍼스 기네스북 경연대회
- ◆ 베스트커플 선발대회
- ◆ 대학생 그라운드 콘서트
- ◆ 에어로빅 & 재즈댄스 페스티벌

NEWS 1 에버랜드 이용권 50% 할인!
(캐리비안베이 포함)
단, 그대가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50% 할인 (학생증 및지갑제출)
NEWS 2 에버랜드 직접 익스프레스 탄생!
익스프레스 하나, 강변역에서 출발!
(경기 수원시 권선로 111-1111)
익스프레스 둘, 광화문에서 출발!
(경남 창원 문의로 739-0011, 동화역세권 위)

Lager